

## 1장. 예레미야의 소명과 두 환상 (1:1-19)

### 1. 서문 (1:1-3)

서문에서는 예레미야의 출신과 사역의 시기에 관하여서 말한다. 그를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하였는데 요시야 18년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대제사장 힐기야와 동일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왕하 11:4, 8). 힐기야를 아나돗에 거주하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고 밝힌 점에서는 대제사장 힐기야와 구별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면서도 아론의 후손에게 주어진 네 성읍 가운데 하나이다(수 21:18).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5킬로미터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예루살렘 성도 볼 수 있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에 소명을 받아 사역을 시작하였다(627년).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시대에 활동하였으며 예루살렘이 사로잡힐 때까지(587년) 말씀을 전하였다고 밝힌다. 그는 모세처럼 40년 동안 사역을 하였다. 요시야는 재위 18년에 개혁을 시작하였는데(622년) 예레미야는 그가 죽자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었다(대하 35:25). 요시야의 개혁이 좌절된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큰 타격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의 활동 전반기 20년 동안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의 예언이 사실로 증명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예언자로서 활동하였고 애굽에서도 사역하였는데 예레미야서는 그것을 다 넣어서 말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여호와와의 말씀을 대언하였다고 한다. 그의 활동 기간을 이렇게 밝힌 것은 그가 전한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처음 세 구절은 예레미야서 전체의 서론이다. 52장에서 시드기야 11년 말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 전까지 활동한 사실을 기록한다.

1절에서는 ‘예레미야의 말’ 이라고 하고 2절에서는 ‘여호와와의 말씀’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한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은 그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인 것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

### 2. 열방의 예언자로 택하심 (1:4-10)

#### 1) 모태에서 부르심 (1:4-5)

예레미야의 소명을 언급한 부분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강조된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복중에 짓기 전에 알고 예언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셨다. 아담을 짓고 창조하셨듯이(창 2:7), 예레미야를 그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지으셨다. 예언자로 갑자기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 보내기 전부터 택하셨다는 사실은 예레미야에게 큰 확신을 주었을 것이다. 예언자로서 그의 사역은 그의 능력과 자질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가 존재하기 전에 그를 택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참조 시 139:13-16; 사 49:1, 5; 갈 1:15).

따라서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강박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경우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그들의 반대보다 그를 택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의 생명이 형성되기 전에 그를 예언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은 사람의 생명이 지나는 의미에 관하여서도 가르쳐 준다. 사람의 생명은 자기의 손으로 이룬 것이나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것에 달려 있다.

그런데 그는 '열방의 예언자'로 세움을 받았다. '열방'(교임)은 대체로 이방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레미야 25, 46-51장에서 열방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방 나라처럼 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고 몇몇 성구에서 이것을 분명히 표시한다. 예레미야의 사역을 10절에서 명확히 표시하였다.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

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는 것이었는데, 예레미야가 뽑고 새롭게 하는 나라는 일차적으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이뇨?” (2:21) 하고 말씀하셨다. 또한 옛적 길로 돌이키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겠다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희 열방아,'라고 부르셨다 (6:17-18).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열방'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열방에 심판과 구원을 선언하신 것이다.

'열방' 에는 이방 나라도 포함한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강박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3:17). 예레미야와 다른 예언자들도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엄명을 예언” 하였다(28:8).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열방에 대한 심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은 그들의 구원으로 인도된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이 점에서 두 동심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반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구원,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다.<sup>1)</sup>

2) 예레미야의 거절 (1:6)

여호와의 소명에 예레미야가 즐겁게 응답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아이'이어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sup>2)</sup>

3) 여호와의 말씀과 상징적 행동 (1:7-10)

하나님께서서는 전할 말을 줄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한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다.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구원'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예언자는 고난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전할 것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또한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고,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고 하셨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친히 시행하실 뜻을 보여 주신 것이다. 예레미야를 모세와 같은 예언자의 반열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은 신명기 18:18의 표현과 같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예레미야는 두려워하면서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열방과 왕국들'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셨다. 여호와의 선택을 받은 예레미야는 이방 나라와 같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때에 말씀하신 여섯 동사는 예레미야가 예언자로서 감당할 사명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다. "너로 뽑고, 허물며, 전멸하고, 파쇄하고, 세우고, 심게" 하겠다고 하셨다(1:10).

이 구절은 예레미야서에서 여러 번 반복된다(12:14-17; 18:7-9; 24:6; 31:27-28; 42:10; 45:4). 10절의 내용은 교차 대구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뽑고		
	허물며	
		전멸하고
		파쇄하며
	세우고	
심는다		

여섯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뽑는다, 전멸한다, 심는다는 단어는 농사와 관련되고, 파멸한다, 파쇄한다, 건설

1) P. Craigie et al, *Jeremiah 1-25*, 11.  
 2) 예레미야가 '열방의 예언자' 로 부름을 받은 것을 바벨론이나 애굽을 위한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Philip Lyken 은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 는 구절을 아카드어나 우가릿어를 습득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좋은 상상이긴 하지만 정확한 주해는 아니다. *A Prophet to the Nations*, 23.

한다는 말은 건축과 관련된 용어이다. 교차 대구법의 중심인 ‘전멸과 파쇄’가 예레미야 사역의 중심에 있고, ‘뽑는다/심는다, 허문다/세운다’와 함께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파멸하시며 넘어뜨리시는 심판이다. 심판의 대상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다. 우상을 섬겨서 열방처럼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심판하시고 다시 건설하실 뜻을 보이셨다.

뽑고 파괴하는 것은 물리적인 일이지만 여기에서는 예레미야의 입에 두신 말씀을 하신다고 하였다. 이것이 세상의 파괴하는 힘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종교적인 언어와 행위만 있는 다른 종교, 혹은 우상 숭배적인 기독교 종교와도 구분되는 것이다.

여호와와의 말씀은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 위에 높이시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 3. 두 환상 (1:11-16)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는 질문을 하시면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 주셨다. 첫째는 살구나무 환상이다. 살구나무는 1-2월에 피기 시작하여서 봄이 오는 것을 알린다. 새로운 시절이 시작됨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살구나무(샤케드)는 ‘지켜본다’ (쇼케드)는 말과 발음이 비슷하다. 살구나무 환상은 그 나무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지켜본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1:12). 여호와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의 시기라는 새로운 시절이 시작됨을 인상적으로 알려 주셨다.

둘째 환상은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다. 끓는 가마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재앙이 터져서 그 땅에 거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다음 구절과 관련시키면 끓는 물이 아래로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연상케 한다.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은 아니지만 북방에서 내려온 민족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려 주는 환상이다.

북방에서 내려오는 부족들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들이 각각 예루살렘 성문 앞에 자기 왕좌를 둘 것이라고 하였다. 한 나라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와서 예루살렘을 공략할 것이라고 하였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불렸는데 그 성읍이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3:17). 이 예언은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바벨론의 모든 방백이 예루살렘 중문에 앉았을 때 성취되었다(39:3).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을 시행하시는 것은 그들이 악행을 하였기 때문인데 그 악행의 내용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한 것이라고 지목하여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그들 앞에 두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는 것은 십계명의 처음 두 계명을 어기는 일이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일인데 이 점은 2장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 4. 말씀의 전파와 하나님의 약속 (1:17-19)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 주신 후에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수행하라고 하셨다. 허리를 동이는 것은 긴 옷의 아랫단을 허리띠에 묶어서 신속히 달리기 위한 것이다. 이 문맥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말씀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사람들 앞에서 떨지 말라고 하신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바르게 받지 않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겠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다. ‘떨다’는 말은 오랜 한발로 땅이 갈라진 것을 묘사하는 데에 사용된 말이다(14:4). 외적인 압박이 강하여서 심적으로 분열을 겪거나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더 두려운 상태에 떨어진다고 하셨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전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소명과 환상에 대한 부분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강하고 굳게 하시는 말로 끝난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셨다.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어서 외적의 공격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쇠기둥은 건물을 짓는 데에 사용할 수도 있고, 성문을 가로지르는 기둥을 뜻할 수도 있다. 고대 근동에서 놋 성문은 있어도 놋 성벽은 없다. 초기의 놋 성문은 문의 돌쩌귀와 문의 중심과 테두리를 놋으로 입혔다. 그것은 화전(火箭)의 공격을 배겨내지 못한다. 그래서 후기의 놋 성문은 나무로 만든

문에 놋을 입혀서 화전으로부터 성을 방비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놋 성벽은 공성추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셔서 그가 유다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는 강력한 사람이었지 단순히 ‘눈물의 예언자’ 만은 아니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수비에 관련된 것만 약속하신 점이다. 예레미야를 반드시 공격할 것이므로 거기에 대하여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또한 여기에서 이미지의 변환도 볼 수 있다. 15절에서는 북쪽에서 내려온 나라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고 그 성문 앞에 보좌를 베풀고 주변의 성벽들과 성읍을 칠 것이다. 시온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그릇된 자부심을 가졌던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지만, 예레미야는 그러한 공격을 견디어 낼 것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공격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와 함께하시면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예레미야는 복음을 전하다가 물이 없는 웅덩이에 갇히기도 하였고 여러 차례 목숨의 위협도 겪었다. 그러한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여호와의 임재로 말미암은 구원을 경험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입에 두신 말씀을 전파하였다.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내용을 전파하는 것은 예레미야 개인의 구원과는 연결되어 있다(참조. 렘 15:19-21).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정당한 고백을 하였을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다(마 16:13-19).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 신약의 교회도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면서 교회에게 주신 복음을 전파하여야 한다.

## 목상과 실천:

### 하나님의 소명과 선지자의 말씀 경험

예레미야는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예언자로 택함을 입었다. 그렇지만 ‘열방의 예언자’ 로 세움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자기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와 같이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도 들어주시고, 예레미야에게 ‘두려워 말라’ 하고 위로해 주셨다. 소명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도 주님께서 없애 주신다고 하셨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일’ 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하신 말씀이다(출 3:12).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만 주시는 법이 없고, 성신으로 함께하시면서 예언자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사용하여 자기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구원’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예레미야는 열방과 같이 된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고향 아나돗 사람에게서 생명의 위협도 받았다. 그러한 때에 그는 하나님께 호소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그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상황에서도 놓임을 받았다. 예레미야가 구원을 받은 일은 그가 전파하는 메시지와 관련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전파하였다. 그는 자기가 구원을 받는 경험과 함께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다.

예레미야가 구원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파멸’ 과 ‘뽑힘’ 을 당한 데에서 구원을 받은 것과는 관련이 있다. 10절에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이 그가 전할 내용이었는데, 예레미야 자신이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건설되고 심게 되는 것도 전파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인격적인 일이다. 자기의 삶과는 무관하게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경험한 자로서 그 말을 전하는 것이다.

## 1장 익힘 문제

1. 예레미야는 어느 지방 사람입니까? (1절)
2.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의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입니다. 빈 곳을 채우십시오. (2, 3절)  
요시아, □□□□□, 여호야김, □□□□, 시드기야.
3.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여 어떤 위치에 세우셨다고 하셨습니까? (5절)
4. 1)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언제부터 아셨다고 하셨습니까? (5절)  
2) 언제부터 그를 구별하셨다고 하셨습니까? (5절)  
3) 어떤 위치에 세우셨습니까? (5절)
5.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자신을 어떠한 자라 말하였습니까? (6절)
6. 1)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8절)  
2)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면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9절)
7.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열방 만국에 세워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찾아서 써 보십시오. (10절)
8.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11, 12절)
9. 유다가 북방에서 내려온 민족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려주는 의미로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환상은 무엇입니까? (13-15절)
10. 여호와께서는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
11.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가 유다 사람들 앞에서 무엇처럼 되게 하셔서 그들이 그를 이기기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18, 19절)